

간호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서비스 요구 분석

권말숙, 이정화*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Analysis of Knowledge, Attitude and Service Requirements about Dementia among Nursing Students

Mal-Suk Kwon, Jeong-Hwa Lee*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서비스 요구에 대해 조사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K대학에 재학중인 간호학생 584명이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평균점수는 낮은 수준(15.86±4.58)이었다. 치매 지식에 대한 정답률이 가장 높은 영역은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삶의 변화 영역(64.2%)이었고, 질병 진행과정 영역(39.6%)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치매에 대한 태도(45.15±4.59) 및 서비스 요구 평균점수(89.88±9.38)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r=.11$, $p=.008$) 및 서비스 요구($r=.21$, $p<.001$), 치매에 대한 태도와 서비스 요구($r=.34$, $p<.001$)간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긍정적인 태도 함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학생을 위한 치매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평가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knowledge of, attitudes toward, and service requirements for dementia among nursing students. A descriptive study design was used. The participants were 584 nursing students attending K universi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he t-test, ANOVA, Scheffe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using the IBM SPSS 21.0 program. The mean score of dementia knowledge was low(15.86±4.58). The area with the highest correct answer rate for dementia knowledge was life impact(64.2%) and the disease progression area(39.6%) was the lowest. The attitude toward dementia (45.15±4.59) and service requirements(89.88±9.38) were relatively high.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dementia knowledge and dementia attitude($r=.11$, $p=.008$) and service requirements($r=.21$, $p<.001$) and between dementia attitude and service requirements($r=.34$, $p<.001$). Therefore, accurate knowledge of dementia was closely related to positive attitudes. In conclus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application and evaluation of dementia education programs for nursing students.

Keywords : Attitude, Dementia, Knowledge, Nursing Students, Service Requirements

1. 서론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2015년 기준 전체 인구의 13.2%로 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1].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더불어 치매노인도 매

1.1 연구의 필요성

본 논문은 경운대학교 교내학술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Jeong-Hwa Lee(Kyungwoon Univ.)

Tel: +82-54-479-4120 email: awhjeong@naver.com

Received June 15, 2017

Revised (1st August 7, 2017, 2nd August 16, 2017)

Accepted September 15, 2017

Published September 30, 2017

년 증가하는 추세로, 2017년 현재 치매유병율은 10.2%로 65세 이상노인 10명 중 1명은 치매환자인 셈이며, 2050년까지 치매유병율은 15.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2]. 또한,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중 치매(25.4%) 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치매노인에 대한 간호와 관리의 중요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3]. 이에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014년 7월 장기요양 5등급 치매특별등급 신설,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방안으로 치매예방, 진단·치료·돌봄 서비스 제공, 치매환자 가족지원, 인프라 확충 등 내실화를 다지고 있지 만[2], 여전히 가정과 사회는 고통과 좌절에 신음하고 있는 실정이다.

치매 환자의 60-80%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치매 유형으로 알려져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다발성 인지기능 손상이나 파괴로 인해 기억력, 언어능력, 문제해결 능력 등의 상실을 특징으로 하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일상생활 장애와 공격행동 같은 심한 행동심리증상이 발생한다[4].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는 정상적 노화과정은 아니며, 문화나 사회적 특성 등 많은 장애물들로 인해 조기 발견 및 대처 지연, 치료 방해 가능성이 다분하지만[5], 우리나라 성인 및 노인의 알츠하이머 치매 지식 정도 조사, 건강정보 이해능력 수준을 파악한 기초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6]. 국외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지식 수준을 측정한 선행연구 결과[5, 7, 8] 치매지식은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에 대한 지식부족과 편견은 조기발견과 치료 지연의 원인이 되어 치매노인과 가족의 삶의 질 저하, 치매관련 의료비 지출증가 등으로 이어진다.

치매에 대한 태도는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되며 행위의 근거가 된다[9]. 또한, 치매노인과 인지적 관계 형성 및 간호서비스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돌봄의 질은 긍정적 태도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10]. 간호학생들은 일반노인환자보다 치매노인환자에게 더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는 치매노인에게 고품질의 간호 제공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12]. 간호사의 치매노인에 대한 돌봄 경험적 연구[13]에서도 치매노인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치매노인이라는 고정관념 타파, 질병 자체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보다 환자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초기 집중적 간호 필요, 치매노인의 언어나 행동

을 인정하여 마음을 잘 헤아려주며, 치매노인에게 진정 어린 관심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간호현장에서 치매노인 및 보호자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실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간호사이므로 치매노인 간호서비스에 필요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전문인력 배출을 위한 간호교육은 중요하다[14]. 급속도로 고령화하는 사회구조변화현상에 따라 간호학생들은 다양한 실습현장에서 간호대상자로서 치매노인들을 만나는 기회가 증가할 것인데, 치매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은 치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11], 치매에 대한 지식이 치매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요양보호사[9], 청소년[15], 저소득층 중년여성[16], 지역사회거주 노인[17] 등과 같이 대상자를 달리한 선행연구에서도 치매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인지장애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치매환자의 경우 효과적 중재의 성공여부는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서비스 이용에 의해 좌우된다[4]. 다양하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과 연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급속히 증가하는 치매노인의 수를 고려한다면 서비스 요구의 종류, 수준 및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문인으로서 질병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18]. 또한, 치매의 특성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상태에 따른 복합적 요구에 부합되는 각종 서비스와 다학제간 협력 및 조정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간호학생에게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전문 요양시설, 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시행, 의료기관 가정방문 등 각자 분야의 간호업무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하여 치매노인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요구 상황에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서의 훈련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서비스 요구를 파악하여, 미래 간호사로서 치매노인과 그 가족에게 포괄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될 간호학생의 전문지식과 긍정적 태도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서비스 요구를 조사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함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서비스 요구와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K대학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alpha = .05$, 검정력 .80, 효과 크기 .25로 산출한 결과 최소 246명 제시되었으나, 학년을 고려하여 같은 비율로 층화표집을 실시하여 총 600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목적의 이해와 연구 참여에 동의 한 전체 응답자 600명 중 설문 응답 미비, 누락된 설문 응답자 등 부적절한 응답자 16명을 제외한 총 584명의 자료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치매에 대한 지식

치매에 대한 지식은 알츠하이머병 관련 지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Carpenter 등[5]이 개발한 The Alzheimer's Disease Knowledge Scale(ADKS)을 Kim[6]이 한국어 판으로 번역한 도구(ADKS-K)를 사용하였으며, 원저자와 번역저자에게 전화와 이메일로 사전 승인을 받았다. 2009년 미국에서 개발된 이 도구는 전문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지식 점수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도구이며, 뇌세포 변성 결과로 나타나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위험요인, 사정과 진단, 인지장애 특성 및 증상, 진행과정,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삶의 변화, 치료 및 관리, 돌봄제공 등에 관한 지식정도를 측정한다[6]. 도구는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와 '아니다', '모른다'로 답할 수 있다. 정답은 1점, 오답과 모르는 경우는 0점 배점하여 총점 30점 만점으로 산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

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3$ 이었다.

2.3.2 치매에 대한 태도

치매에 대한 태도는 Song[19]의 도구를 Lee 등[16]이 수정·보완하여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긍정적 9문항(1,2,3,4,5,6,9,10,11)과 부정적 6문항(7,8,12,13,14,15)의 총 15문항이며,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 점수 범위는 최소 15점에서 최대 60점이다. 부정적 문항은 역으로 점수 계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Lee 등[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5$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69$ 였다.

2.3.3 치매에 대한 서비스 요구

치매에 대한 서비스 요구는 Ha[18]와 Cho 등[20]의 도구를 Kim[12]이 서비스 영역별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전 승인 후 사용하였다. 도구는 "교육 및 정보제공 서비스" 5문항, "재가복지 서비스" 5문항, "가족자원강화" 5문항, "전문 인력 양성 확대" 5문항의 4개영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필요 없다'의 1점부터 '매우 필요하다'의 5점까지 점수 범위는 최소 20점에서 최대 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서비스 요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1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5$ 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4$ 였다.

2.4 자료 수집 방법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K대학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File No. KW-2017-10)을 받은 후 시행하였고, 2017년 04월 20일부터 04월 28일까지 자료수집 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해 사전설명한 후 자발적 참여의사가 있는 경우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동의하였더라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 철회 가능하며, 모든 자료는 익명 전산 처리 후 연구 목적 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설문 응답에는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서비스 요구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서비스 요구 간 차이 검정은 t-test,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 4) 변수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487명(83.4%)으로 남성 97명(16.6%)에 비해 많았고, 학년은 1학년 151명(25.9%), 2학년 146명(25.0%), 3학년 150명(25.7%), 4학년 137명(23.5%)이었다. 종교는 무교가 343명(58.7%)으로 가장 많았다. 치매문제 관심정도는 '있다'가 414명(70.9%), 치매지식 정보를 접한 경험은 '있다'가 315명(53.9%), '없다'가 269명(46.1%)으로 나타났다. 치매지식 정보 경로는 'TV·라디오 방송' 215명(43.3%), '교육자료' 128명(25.8%), '가족·친척' 54명(10.9%), '신문·잡지' 44명(8.9%), '기타' 44명(8.9%), '친구' 11명(2.2%) 순으로 나타났다. 치매에 대한 교육 경험은 '없다'가 385명(65.9%), 치매환자를 돌봄 경험도 '없다'가 433명(74.1%)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에서는 '잘모른다' 298명(51.0%), '어느정도 안다' 143명(24.5%), '전혀 모른다' 138명(23.6%), '잘안다' 5명 (0.9%)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치매환자 부양과 치료주체는 '가족과 친척'이 383명(65.6%)으로 가장 많았다. 자신의 가족이 치매에 걸린다면 모시고 싶은 장소로는 '노인전문요양병원' 227명(38.9%), '가정' 164명(28.1%), '생각해 본적 없다' 103명(17.6%), '노인요양시설' 41명(7.0%), '병원' 31명(5.3%), '노인복지시설' 18명(3.1%)으로 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서비스 요구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 지식정도는 성별($t=-3.35, p<.001$), 학년($F=25.45, p<.001$), 치매문제 관심정도($t=4.07, p<.001$), 치매지식 정보 경험($t=5.42, p<.001$), 치매교육 경험($t=5.96, p<.001$), 치매 환자 돌봄 경험($t=4.69, p=.00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도($F=16.11,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고, 3,4학년이 1,2학년보다 지식정도가 높았다. 또한, 치매문제에 관심 있고, 치매지식 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으며, 치매교육 경험 있고, 치매환자를 돌봄 경험 있는 경우 지식정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집단이 모르는 집단보다 지식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에 대한 태도는 학년($F=2.70, p=.045$), 치매문제 관심($t=6.05, p<.001$), 치매지식 정보 경험($t=3.32, p<.001$), 치매 환자 부양과 치료 주체($F=3.37, p=.018$), 자신의 가족이 치매에 걸린다면 모시고 싶은 장소($F=3.67, p=.00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치매문제에 대한 관심과 치매 지식에 대한 정보를 접한 경우 치매에 대한 태도점수가 높았다. 치매 환자 부양과 치료주체는 '가족이나 친척'인 경우에, 자신의 가족이 치매에 걸린다면 모시고 싶은 장소는 '가정'이 '생각해 본적 없다'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년에는 2,3,4학년이 1학년보다 치매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 요구는 성별($t=-2.15, p=.034$), 학년($F=2.68, p=.046$), 치매문제 관심($t=2.08, p=.038$), 치매지식 정보($t=2.35, p=.019$)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치매문제에 대한 관심과 치매 지식에 대한 정보 경험 있는 집단이 서비스 요구정도가 높았다. 학년은 1학년이 2,3,4학년보다 치매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3.3 치매에 대한 지식 정도

치매에 대한 지식 점수는 총30점 만점에 15.86 ± 4.58 점(백분율 53.1%)으로 낮게 나타났다. 정답률이 높은 영역은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삶의 변화 영역(64.2%), 사정과 진단 영역(60.3%), 돌봄제공 영역(56.8%), 위험요인 영역(53.9%), 치료 및 관리 영역(51.3%), 인지장애 특성 및 증상 영역(45.5%) 순으로 나타났으며, 질병 진행과정 영역(39.6%)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2].

Table 1. Knowledge, Attitude and Service Requirements about Dementia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58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Knowledge			Attitude			Service Requirements		
			M±SD	t/F	p Scheffè	M±SD	t/F	p Scheffè	M±SD	t/F	p Scheffè
Gender	Male	97(16.6)	12.23±5.43	-3.35	<.001***	46.74±5.45	-1.81	0.073	87.62±11.83	-2.15	0.034*
	Female	487(83.4)	14.19±4.32			47.80±4.38			90.33±8.76		
Academic year	First year ^a	151(25.9)	11.78±5.27	25.45	<.001***	48.47±4.37	2.70	0.045*	90.91±8.89	2.68	0.046*
	Second year ^b	146(25.0)	13.18±4.23		c,d>a,b	47.35±4.46			88.05±10.29		
	Third year ^c	150(25.7)	14.74±3.59			47.05±4.87			90.13±9.13		
	Four year ^d	137(23.5)	15.93±3.95			47.64±4.56			90.43±9.00		
Religion	Protestant	103(17.6)	13.55±4.77	1.50	0.213	48.13±4.058	0.941	0.42	88.89±9.76	0.804	0.492
	Catholic	48(8.2)	15.17±3.45			48.25±4.675			91.1±10.45		
	Buddhism	90(15.4)	13.87±4.39			47.48±4.158			90.54±8.335		
	None	343(58.7)	13.77±4.69			47.43±4.825			89.84±9.378		
Attention to dementia Concern	Yes	414(70.9)	14.37±4.37	4.07	<.001***	48.34±4.40	6.05	<.001***	90.40±9.06	2.08	0.038*
	No	170(29.1)	12.62±4.85			45.89±4.58			88.63±10.04		
Exposure to information on dementia	Yes	315(53.9)	14.80±4.13	5.42	<.001***	48.21±4.56	3.32	<.001***	90.72±8.82	2.35	0.019*
	No	269(46.1)	12.77±4.84			46.95±4.54			88.90±9.93		
Experience and education	Yes	199(34.1)	15.32±3.98	5.96	<.001***	47.66±4.76	0.11	0.910	90.47±9.16	1.08	0.280
	No	385(65.9)	13.11±4.69			47.61±4.50			89.58±9.49		
Experience in caring for persons with dementia	Yes	151(25.9)	15.21±3.84	4.69	0.000***	48.17±4.84	1.67	0.095	90.81±8.86	1.41	0.160
	No	433(74.1)	13.39±4.72			47.44±4.49			89.56±9.55		
Long-term care insurance awareness	Know well ^a	5(0.9)	16.80±1.92	16.11	<.001***	50.20±7.23	2.26	0.081	89.80±14.18	1.30	0.273
	Know a little ^b	143(24.5)	15.83±3.55		b>c,d	48.07±4.12			90.99±8.78		
	Don't know ^c	298(51.0)	13.57±4.38			47.72±4.51			89.86±9.04		
	Have no idea ^d	138(23.6)	12.35±5.25			46.88±5.04			88.78±10.45		
Support and treatment of dementia patients	One's own self	42(7.2)	12.86±5.83	2.15	0.093	46.79±5.01	3.37	0.018**	89.79±8.92	2.56	0.054
	A family member	383(65.6)	14.00±4.32			48.05±4.43			90.26±8.86		
	A state society	143(24.5)	14.04±4.63			46.93±4.66			89.58±9.79		
	Others	16(2.7)	11.63±5.83			46.00±5.54			83.75±15.95		
If you have a family member with dementia, residence	Home ^e	164(28.1)	13.88±4.81	1.29	0.266	48.84±4.38	3.67	0.003**	89.74±10.04	0.87	0.499
	Hospital ^b	31(5.3)	13.13±4.28			47.13±4.23		a>f	89.06±8.45		
	Geriatric nursing hospital ^f	227(38.9)	13.96±4.51			47.41±4.33			90.32±9.31		
	Elderly care facilities ^d	41(7.0)	14.59±4.24			47.15±5.34			87.78±11.16		
	Elderly welfare facility ^e	18(3.1)	15.61±3.85			47.06±3.98			92.61±8.67		
	Have no idea ^f	103(17.6)	13.24±4.64			46.62±5.04			89.76±7.98		

*p<.05, **p<.01, ***p<.001.

Table 2. Frequency of Correct and Incorrect Answers on Dementia Knowledge (n=584)

Variables	Correct		Incorrect	
	n	(%)	n	(%)
Total ADKS (Alzheimer's Disease Knowledge Scale)	310	53.1	274	46.9
Assessment and diagnosis (4 questions)	352.3	60.3	231.8	39.7
Caregiving (5 questions)	331.6	56.8	252.4	43.2
Disease progression (4 questions)	231.3	39.6	352.8	60.4
Life impact (3 questions)	375.0	64.2	209.0	35.8
Risk factors (6 questions)	314.8	53.9	269.2	46.1
Symptoms (4 questions)	265.5	45.5	318.5	54.5
Treatment and management (4 questions)	299.5	51.3	284.5	48.7
Total score(M±SD)	15.86 ± 4.58점			

3.4 치매에 대한 태도와 서비스 요구 정도

치매에 대한 태도는 총60점 만점에 평균 45.15±4.59점(백분율 75.25점)이었다. 문항별 세부 분석결과 긍정적 문항에서 '노인들에게 치매예방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가 3.68±0.52점으로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나는 사람들이 치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가 3.64±0.54점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정적 문항에서는 '치매 환자는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2.16±0.65점), '치매환자는 거부감이 느껴진다'(2.19±0.71점), '치매에 걸린 노인은 그 자신이나 가

족을 위해 돌아가시는 것이 낫다'(2.35±0.67점) 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치매에 대한 서비스 요구는 100점 만점에 89.88±9.38 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영역의 하위 항목별 요구 정도를 살펴보면 ‘전문 인력 양성 확대’ 영역이 14.01±1.61점(4.67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 및 정보제공 서비스’ 영역 18.34±2.14점(4.59점), ‘가족지원 강화’ 영역 31.03±3.88점(4.43점), ‘재가복지 서비스’ 영역 26.51±3.38점(4.42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Scores of Attitude toward Dementia and Service Requirements

(n=584)

Variables	M±SD	min	max	Range of score	Item mean
Attitude	45.15±4.59	30	58	15-60	3.01
Service Requirements	89.88±9.38	51	100	20-100	4.49
Educ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18.34±2.14	4	20	4-20	4.59
Home care services	26.51±3.38	12	30	6-30	4.42
Strengthening family resources	31.03±3.88	14	35	7-35	4.43
Expansion of training of professional manpower	14.01±1.61	5	15	3-15	4.67

3.5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서비스 요구간의 관계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서비스 요구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치매에 대한 지식은 태도($r=.11, p=.008$) 및 서비스 요구($r=.21,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에 대한 태도 또한 서비스 요구($r=.34,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Dementia Knowledge, Attitude, Service Requirements

(n=584)

Variables	Knowledge	Attitude	Service Requirements
Knowledge	r 1.00 (p)		
Attitude	r 0.11** (p) 0.008	1.00	
Service Requirements	r 0.21*** (p) <.001	r 0.34*** (p) <.001	1.00

* $p<.05$, ** $p<.01$, *** $p<.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서비스 요구를 파악하여 미래 간호현장에서 치매노인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게 될 간호학생의 치매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치매에 대한 지식은 30점 만점에 15.86 점(정답률 52.8%)으로 중간점수를 겨우 넘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동일 도구(ADKS)를 사용한 Carpenter 등[5]의 20.19점, Scerri 등[7]의 19.36점, Kimzey[8]의 23.43점 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는, ADKS의 문항 난이도 자체가 높고 [21], 미국 대상자보다 어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한다[6]. 하지만 무엇보다 본 연구 대상자는 1~4학년 학생을 조사 하였는데, 특히 1~2학년은 치매관련 전공교과목 이수나 임상실습진인 상태여서 전반적인 점수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하며, 간호학생에게 치매 교육 후 치매에 대한 지식 향상을 확인한 선행연구 결과 [8, 14, 22]와 일맥상통한다. 더불어 학년별로 치매에 대한 지식, 치매 교육 세션을 달리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23], 고학년보다 다양한 봉사활동 경험을 쌓아야 하는 저학년인 경우 보건교육이나 전문가 특강을 통한 치매 집중교육이 필요하다.

치매에 대한 지식 하위영역 중 생활에 미치는 영향 영역의 정답률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노인들의 생활양식과 유사한 내용이 함유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질병진행과정과 관련된 문항의 지식수준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교육 부재로 인한 전문적인 지식 결여의 결과로 보여진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증상, 치료 및 관리, 위험요인들의 정답률도 절반을 넘지 못하였는데, 이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한 Kim[12]의 연구결과와 다양한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Smyth[2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치매에 대한 지식부족과 오해는 발생위험에 대한 과소평가, 정확한 원인을 몰라 생기는 불필요한 두려움, 초기 증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진단의 지연, 그리고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소극적인 치료태도를 보임으로써 치매 예방 및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20].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학생을 위한 치매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위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 체계적인 교

육과 충분한 훈련이 고려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지식 정도를 살펴보면, 학년에 따른 치매 지식점수는 1,2학년에 비해 3,4학년의 치매지식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학생[21]과 의대생[23]을 대상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치매에 대한 지식 점수가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본격적으로 이론과 실습 전공수업이 3학년부터 이루어짐과 관련 있어 보인다[11]. 또한, 치매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식정보, 치매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지식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치매환자를 돌본 경험 있는 경우에 지식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선행연구 결과[21, 25]를 지지하였다. 이는 치매노인 대상 이론과 임상실습 교육, 다양한 봉사활동 경험 등의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간호현장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게 될 간호학생에게 노인간호학 이론 및 임상실습 통합 교육과정에서 치매교육 및 치매환자 간호경험을 갖도록 하여 치매 지식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급성기 환자 실습기관[10] 및 다양한 실습기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21].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인지한 경우가 지식수준이 높았는데, Kim[12]의 연구결과처럼 치매환자와 국가차원의 정책과 제도에 관심을 보여주는 경우 지식 추구 행동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태도는 60점 만점에 45.15점(백분율 75.25점)으로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치매에 대한 태도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부분은 “노인들에게 치매 예방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점과 “치매에 대한 관심”과 관련된 문항이었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부분은 “치매환자에 대한 존재감의 느낌, 거부감” 등과 관련된 문항이었다. 이는 치매 가능성 있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게 치매 예방교육 실시에 대한 높은 요구도와 관심은 있으나, 치매 특성상 발현되는 행동심리 증상 등에 대한 치매환자 간호에서는 상당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20].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매에 대한 태도에서 1학년이 2,3,4학년보다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치매노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관심이 적거나 없는 집단보다 어느 정도 있거나 매우 많은 집단에서 부정적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11]와 치매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을 때는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나 치매환자를 경험한 집단의 경우 다양한

스트레스로 치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19]와 유사하였다. 치매 환자 부양과 치료 주체는 가족이나 친척이 1순위로 나타났다. Cho 등[20]의 연구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는 보호자 10명 중 9명이 환자의 가족이었으며, 가족이라는 의무감으로 보호자의 70%는 환자를 끝까지 돌보고자 한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핵가족화나 1인 가구로의 가족구조변화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가족이 최우선 부양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가족이 치매에 걸린 경우 노인요양시설로 모시고자 하는 것은 Park[26]의 연구처럼 사회 변화속에서 치매를 가족 내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 국가,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치매노인들에 대한 태도 향상을 위해서 치매노인과의 직접적인 실무경험을 제공하여[11], 간호학생으로 하여금 치매노인에 대한 돌봄과 배려의 윤리적 책무 강화, 소통 및 융합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치매에 대한 서비스 요구는 89.88점(100점 만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치매에 대한 서비스 요구가 높다는 것은 다양한 보건복지 서비스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므로 치매노인에게 필요한 다양한 보건복지 서비스의 개발과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12]. 치매에 대한 서비스 요구 세부 항목 중 치매 전문인력 양성 확대와 교육 및 정보제공 서비스의 요구가 높게 조사되어 선행연구 결과[12, 18, 27, 28]와 유사하였다. 전문 인력 양성 확대를 위해 치매관련업무 실무자를 위한 보수교육이나 치매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프로그램개발, 세미나를 좀 더 심층적, 다변도로 구축할 것이 필요하다. 치매교육경험에 따른 교육내용으로 치매관련 정책이 8.4%로 제시되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10명중 7명이상이 모르는 것으로 조사됨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간호학생에게도 국가치매 정책과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29]. 이를 통해 치매는 개인과 국가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29]. 아울러, 국가차원 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홍보 및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치매에 대한 서비스 영역의 하위 항목별 요구 결과, 전문 인력 양성 확대 중 “치매 유형, 중증도별 특성에 적

합한 맞춤형 치료 필요성”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치매노인 주 수발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활성화와 지속적 지지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선행연구 결과[12, 19]를 지지한다.

변수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치매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이며 서비스 요구가 높고, 치매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서비스 요구도 높았다.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서비스 요구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연구대상자는 다르지만 치매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치매 태도점수가 높았다고 보고한 많은 선행연구 결과[9, 15, 16, 17, 30]를 뒷받침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긍정적인 태도 함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간호학생을 위한 치매관련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함에 있어, 치매환자의 신체적·생리적 측면은 물론 심리·사회·정책·제도적 서비스 영역의 교육을 병행하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최적의 인간중심 솔루션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면서, 미래 간호사가 될 간호학생들이 간호현장에서 치매관련 국가 복지정책결정에 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도록 전문적 훈련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간호학생을 위한 치매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평가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서비스 요구를 조사하고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치매지식 정도는 중간수준을 겨우 넘길 정도로 낮았으나, 치매에 대한 태도와 서비스 요구는 비교적 긍정적이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서비스 요구간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가 일개 대학 간호학생에 한정되어 모든 간호학생에게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은 있으나,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1) 치매 지식 하위영역 중 낮게 측정된 항목 중심 교육프로그램 개발·적용 이후 효과 분석 연구를 제언한다.

- 2) 치매환자를 대면하고 있는 다양한 보건의료인에게 알츠하이머 치매 지식도구(ADKS)를 적용해 볼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Elderly Statistics(2016).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5/index.board?bmode=read&aSeq=356426
- [2] Ministry of Health & Welfare(2017). National Institute of Dementia. The status of dementia. https://www.nid.or.kr/info/today_list.aspx. cited 2017 JUNE 10.
- [3]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2017).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in Korea. Statistical Data of Health Insurance in Korea(2010~2013).
- [4] Alzheimer's Association, "Alzheimer's Association Report 2017 Alzheimer's disease facts and figures", Alzheimer's & Dementia, Vol. 13, pp. 325-373, 2017.
- [5] Carpenter, B.D., Balsis, S., Otilingam, P.G., Hanson, P.K., Gatz, M., "The Alzheimer's Disease Knowledge Sca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The Gerontologist, Vol. 49, No. 2, pp. 236 - 247, 2009. DOI: <https://doi.org/10.1093/geront/gnp023>
- [6] E. J. Kim, J. Y. Jung,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Alzheimer's Disease Knowledge Scale-Korean Vers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5, No. 1, pp. 107-117, 2015. DOI: <http://dx.doi.org/10.4040/jkan.2015.45.1.107>
- [7] Scerri, A., & Scerri, C., "Nursing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dementia: A questionnaire survey", Nurse Education Today, Vol. 33, No. 9, pp. 962-968, 2013. DOI: <https://doi.org/10.1016/j.nedt.2012.11.001>
- [8] Kimzey, M., Mastel-Smith, B., Alfred, D., "The impact of educational experiences on nursing stud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Alzheimer's disease: A mixed method study", Nurse Education Today, Vol. 46, pp. 57-63, 2016. DOI: <https://doi.org/10.1016/j.nedt.2016.08.031>
- [9] K. A. Kim, K. A. Kim, M. R. Sung, "A study on the level of dementia 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 among care workers", Korean Journal of Care Management, Vol. 6, pp. 23-51, 2011.
- [10] Kang, Y., Moyle, W., Venturato, L., "Korean nurses' attitudes towards older people with dementia in acute care sett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Older People Nursing, Vol. 6, No. 2, pp. 143-152, 2011. DOI: <https://doi.org/10.1111/j.1748-3743.2010.00254.x>
- [11] J. H. Kim, "Attitudes Toward General Elders and Elders with Dementia Among Baccalaureate Ju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18, No. 4, pp. 601-610, 2007.
- [12] S. H. Kim, "Knowledge, Attitude, and Recognized Service Requirements for Dementia concerning Students

- of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and Social Welfare, Woosuk University, Jeonju, 2013.
- [13] C. G. Kim, Y. H. Lee, "Nurses' Experiences of Caring with Demented Older Person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 24, No. 5, pp. 454-465, 2012.
DOI: <https://doi.org/10.7475/kjan.2012.24.5.454>
- [14] S. J. Park, K. S. Park, Y. J. Kim, "The Effects of Geriatric Nursing Education for Nursing Students' Attitude, Perception toward Dementia and Dementia Polic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7, pp. 4467-4477,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7.4467>
- [15] E. H. Hwang, B. K. Kim, H. R. Kim, "A Study on Dementia-related Knowledge and Attitudes i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Vol. 16, No. 2, pp. 133-140, 2013.
DOI: <https://doi.org/10.7587/kjrehn.2013.133>
- [16] Y. W. Lee, S. M. Woo, O. R. Kim, S. Y. Lee, H. B. Im, "Relationships between Dementia Knowledge, Attitude, Self-Efficacy, and Preventive Behavior among Low Income Middle-Aged Women",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 21, No. 6, pp. 617-627, 2009.
- [17] H. J. Kim, D. Y. Jung, "A Study of Cognitive Impairment,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Dementia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5, No. 3, pp. 731-743, 2015.
- [18] J. H., "Study on the Service Needs of Families Caring for Patients with Dementia",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19] Y. H. Song, "The study on the understanding and attitude of dementia: for the middle-ag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dukUniversity, Seoul. 2002.
- [20] M. J. Cho, K. Y. Kim, M. H. Kim, M. D. Kim, B. J. Kim, S. K. Kim, J. R. Kim, etc, "Nationwide Study on the Prevalence of Dementia in Korean Elders", pp. 1-24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8.
- [21] J. H. Shin, H. J. Seo, K. H. Kim, K.H. Kim, Y.J. Lee., "Knowledge about dementia in South Korean nursing students: a cross-sectional survey", BMC Nursing, DOI: <https://doi.org/10.1186/s12912-015-0116-4>
- [22] H. Y. Kang, M. J. Chae, H. S. Seo, K. M. Yang, "The Effect of Dementia Education Program o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9, No. 1, pp. 69-77, 20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1.69>
- [23] Nagle1, B. J., Usita1, P. M., Edland, S. D., "United States medical students' knowledge of Alzheimer disease",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Vol. 10, No. 4, pp. 1-5, 2013.
- [24] Smyth, W., Fielding, E., Beattie, E., Gardner, A., Moyle, W., Franklin, S., ... MacAndrew, M., 2013. A survey-based study of knowledge of Alzheimer's disease among health care staff. BMC Geriatr. 132
DOI: <https://doi.org/10.1186/1471-2318-13-2>
- [25] Skaalvik, M.W., Normann, H.K., Henriksen, N., 2010. "Student experiences in learning person-centered care of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a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d supervising nurses", Journal of Clinical Nursing, Vol. 19, pp. 2639-2648, 2010.
DOI: <https://doi.org/10.1111/j.1365-2702.2010.03190.x>
- [26] I. J. Park, W. S. Choi, A. H. Kim, "A Study on the University Students' Attitude toward Dementia and their Perception about Supporting the Elderly".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 3, No. 2, pp. 27-49, 2006.
- [27] B. I. Kweon,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Toward the Aged with Dementia in Chung Cheong Buk - Do",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2008.
- [28] M. j. Oh, "The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Dementia in Korean Soc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29] H. L. Roh, Y. J. Heo, H. J. Kim, Y. J. Kim, "A Q-Methodological Approach to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University Students toward Dementia",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Vol. 52, No. 3, pp. 301~317, 2013.
- [30] Y. H. Lee, "Knowledge, Attitude, and Preventive Behaviors regarding Dementia in Community Pre-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2012.

권 말 숙(Mal-Suk Kwon)

[정회원]



- 1996년 8월 :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석사)
- 2006년 2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중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04년 3월 ~ 2013년 8월 :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3년 9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간호교육, 응급·재난교육

이 정 화(Jeong-Hwa Lee)

[정회원]



- 2003년 8월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석사)
- 2015년 8월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박사수료)
- 2016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노인간호